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인프라 동향 보고(2.6)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분	내용	비고
은행간 환율	110.00 Tk/USD (전주대비 0.00△)	'24.02.06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12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8.84% (전월대비 0.81△)	'23.12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4년 1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Current Yield is close to **1 year maximum valu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5.5 bp	12.200 % Feb 1, 2024		12.255 % Feb 5, 2024
1 Month	+369.5 bp	8.505 % Jan 6, 2024		12.255 % Feb 5, 2024
6 Months	+369.5 bp	8.505 % Aug 6, 2023		12.255 % Feb 5, 2024
1 Year	+369.5 bp	8.450 % Feb 7, 2023		12.255 % Feb 5, 2024

Current Yield: 12.200%
Last update 6 Feb 2024 6:15 GMT+0

□ 경제 반등: 재무장관

- 아불 하산 마흐무드 알리 재무 장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비서관들과 회의를 가진 후 국가의 전반적인 거시 경제 상황은 수출과 송금 증가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다고 발언.
- 수출진흥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은 의류 및 기타 상품의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45% 증가한 5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강하게 반등. 출하량은 회계연도 7월-1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한 332억6000만 달러를 기록. 해외 이주 노동자들 송금액은 1월에 21억 달러, 이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경제는 외부 및 내부 요인으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 겪는 중. 예상보다 낮은 수출과 송금 수입에 비해 수입 증가로 미국 달러의 유출이 증가한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2년 동안 크게 감소.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현지 통화 가치가 30% 하락, 이는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수입 물가 상승에 기여.
- 상무부 수석비서관인 타판 칸티 고쉬(Tapan Kanti Ghosh)는 수출과 송금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외환보유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발표. 외환보유고는 1월 31일 기준 199억4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6월 247억5000만달러, 2021년 8월 407억달러)

□ ADP 실행, 7-12월 기간, 몇년內 최저치 기록

- 재정 스트레스와 선거로 인해 연간 개발 프로그램(ADP)의 시행은 이번 회계연도의 첫 6개월 동안 22.48%로 수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 이행감시평가부(IMED)에 따르면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7~12월에 배정된 ADP 예산 Tk2.75 Lakh Crore에서 6만1740 Crore를 가까스로 집행. 이 기간 ADP에서 외국인 자금 지출은 26.14%로 지난 회계연도의 26.26%보다 약간 낮았음.

□ 6.0억 달러 해외 대출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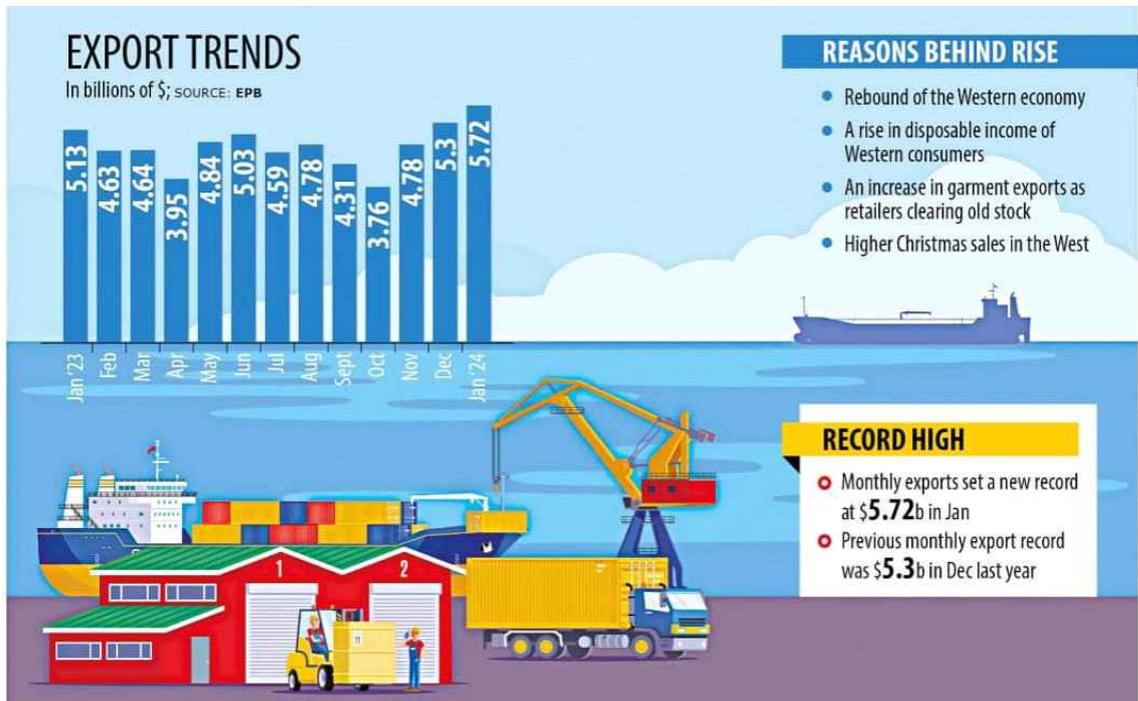
- 정부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카의 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두 개의 거대한 MRT 노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입찰 중인 가운데 외국 대출 기관으로부터 60억 달러의 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 진행중.
- 두 개의 추가 지하철 노선은 81억 1,000만 달러 필요. 다카 대중교통 유한회사(DMTCL)는 MRT 2호선 공사에 Tk 6,083억 6,000만 달러,

MRT 4호선 공사에 Tk 2,84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

- 국영기업은 해외 자금을 찾기 위해 기획위원회와 경제관계국에 예비 개발사업제안서(PDPP)를 발송.
- ERD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새로운 MRT 라인에 대한 자금을 알아보고 있다"며 "DMTCL은 해외 개발 파트너들로부터 구체적인 보증을 받은 후 MRT 라인 건설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이 사업부는 이미 일본,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한국과 같은 일부 해외 개발 잠재 파트너들에게 지하철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발송.
- 제안된 MRT-2 노선은 가블톨리-신시장-플레세이-골랍샤 마자-모티젤-카말라푸르-무그다-데미라-치타공 도로 노선을 따라 건설. 이 24km 노선은 기본적으로 9km만 지하화된 고가 지하철이 될 것. 제안된 MRT-4 16km 노선은 카말라푸르에서 나라양안지까지 건설될 것이며, 전체 노선이 고가화.

□ 1월 수출, 사상 최대인 57억 달러 기록

- 1월 상품 수출은 제조업체들이 한 달 만에 최고치인 57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출하하면서 강하게 반등.
- 송금 흐름은 올해 첫 달에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 11월 수입은 22.41% 감소.
- 방글라데시의 현재 경제 위기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타카가 전례 없는 폭락을 겪고, 인플레이션이 기록적인 수준을 맴돌면서 예상보다 낮은 수출과 송금에 비해 수입이 증가한 것이 원인.
- 1월 수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45% 증가, 이는 국내 출하량의 85%를 차지하는 의류 품목의 판매 증가에 힘입은 것. 공급업체들은 유럽과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면서 서구 세계에서 의류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힘.



-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한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후 개선된 것. 의류와 같은 소비재 판매가 감소하고 팔리지 않은 의류 품목의 재고가 누적. 그러나, 2023년 마지막 분기에 매출이 회복되고 기존 재고가 감소하면서 서구 시장으로의 의류 출하량이 증가.
- 수출과 송금이 현재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입이 억제되고, 대외 투자 증가와 장기 대출에 힘입어 국제수지 재정 수지가 크게 개선된다면, 지난 2년 동안의 위기에서 탈출할 것으로 기대.

□ 금리 인상 전망, 타카 추가 약세 전망

- 기업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차입 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타카는 올해 6월 말에 미국 달러당 Tk 125~Tk 130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신용 제약에 직면할 수 있으며 소비자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통화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올해 6월 말까지 364일 만기 국채 금리가 13-1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금리의 잠재적 인상은 민간 부문의 신용 성장을 제약할 수 있으며, 은행 시스템에 부실 대출이 누적될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음.
- 긴축적인 통화 상황,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 감소 속에서 방글라데시 경제가 2023-24년에 5%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 기금(IMF)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
- 대출 금리 상승은 민간 투자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 부문의 신용 성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기업의 경우 금리가 소비자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대출 금리가 17%까지 오를 수 있음. 또한, 에너지의 시장 가격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것. 2024년 하반기에도 수요와 투자가 약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

2. 건설 · 인프라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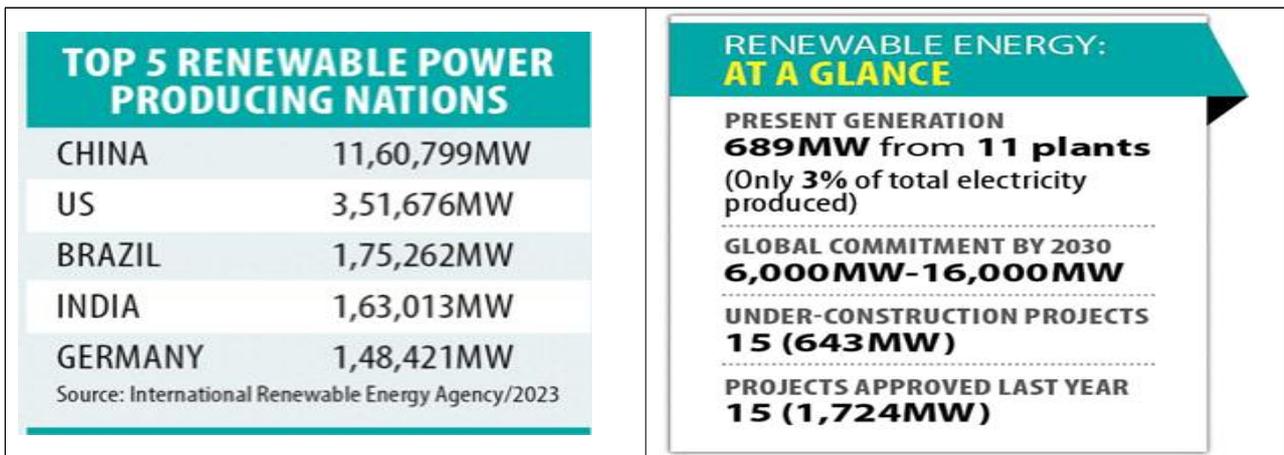
□ 청정 에너지 목표달성 어려움

- 방글라데시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5,500MW가 더 필요.
- 방글라데시는 2017년 자말푸르의 샤리샤바리(Sharishabari)에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재생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그 이후로 이 나라는 국가 전력망에 459MW의 재생 에너지 추가에 그침.
- 지난해 200MW의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력망에 추가하면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원은 3% (689MW)에 불과. 이 중 459메가와트는 10개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 나머지는 랑가마티(Rangamati)의 캡타이(Kaptai)에 있는 230MW 수력 발전소에서 나오는데, 이 발전소는 이전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건설된 것.
- 2016년에서 2023년 사이에 정부는 청정 에너지 소비에 대한 2030년 목표를 상향 및 하향 조정하면서 여러 재생 에너지 계획을 채택했. 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된 무지브 기후 번영 계획 2022-2041에서 2030년 재생 에너지 용량 목표는 6,000MW-16,000MW로 설정. 이는

향후 6년 동안 약 5,500MW를 더 생산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속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

- 현재 이 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 연료 기반 발전소에서 25,481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 지난해 가이반다(Gaibandha)에 티스타 200MW 태양광 발전 단지가 착공되면서 현재 10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 콕스바자르(Cox's Bazar)와 시라즈간지(Sirajganj)에 각각 60MW와 2MW의 용량을 갖춘 풍력발전소 2곳도 시운전을 시작. 또한 작년에 1,724MW 용량의 최소 15개의 다른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승인. 기 승인된 15기 중 1대와 14대는 현재 건설 중, 올해나 내년에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청(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용량은 643MW로 2025년 총 용량 31,700MW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로 끌어올릴 예정.
- 2016년 전력 시스템 마스터 플랜에서 정부는 2021년까지 총 전력 수요의 1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패하는 요인으로 정책문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수입에 대한 과중한 세금과 관세, 불투명한 관세 담합, 계획 및 투자 로드맵 부족 등)가 지적됨.
- 2020년 방글라데시 계획(비전 2041)에서는 2030년까지 10,888MW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했고, 바로 이듬해 정부는 2030년 목표를 4,114MW로 낮춘 UN에 국가결정기여금을 제출. 이듬해인 2022년 정부는 무지브 기후 번영 계획을 발표하고 최소 목표를 6,000MW에서 최대 목표인 16,000MW로 다시 상향 조정.
- 공무원들은 종종 토지 부족을 주요 문제로 언급하지만, 전국의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방글라데시 환경 변호사 협회(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와 해안 생계 및 환경 행동 네트워크(Coastal Livelihood and Environmental Action Network)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구역별 가용 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



[높은 세금, 높은 관세]

- 방글라데시의 대부분의 재생 가능 발전소가 이웃 국가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 주도의 입찰을 실행했다면, 가격은 더 낮았을 것”이라고 기후 금융 분석가이자 에너지 연구 기관인 Change Initiative의 CEO는 언급. “태양광 발전 전기료는 킬로와트 당 약 Tk 16-17이지만, 전 세계 평균은 Tk 5입니다.”라고 발언.
- 중국은 현재 재생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며, 최근 연구에서 정책 대화 센터(Centre for Policy Dialogue)는 중국 정부가 현금 보조금과 세금 공제의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여 이 분야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발견.
- 중국은 자체 생산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장비 판매에 적용되는 50%의 즉각적인 VAT 환급을 제공. 더욱이, 환경 보호, 에너지 및 물 절약 또는 생산 안전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장비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기업은 그러한 장비에 대한 투자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방글라데시의 투자자들은 재생 가능한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 37-56%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Change Initiative의 Zakir Hossain은 언급.
- 또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재생 에너지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 작년에 체결된 계약에서 관세는 단위당 0.09달러에서

0.11달러로 설정. 이는 벅심코가 소유한 티스타 솔라 파크(Teesta Solar Park)에 대해 2017년에 설정된 단위당 0.15달러에서 하락한 것. 2020년과 2021년에 설정된 다른 공장에 대한 관세는 개당 평균 \$0.14 및 \$0.13로 고정.

[단일 창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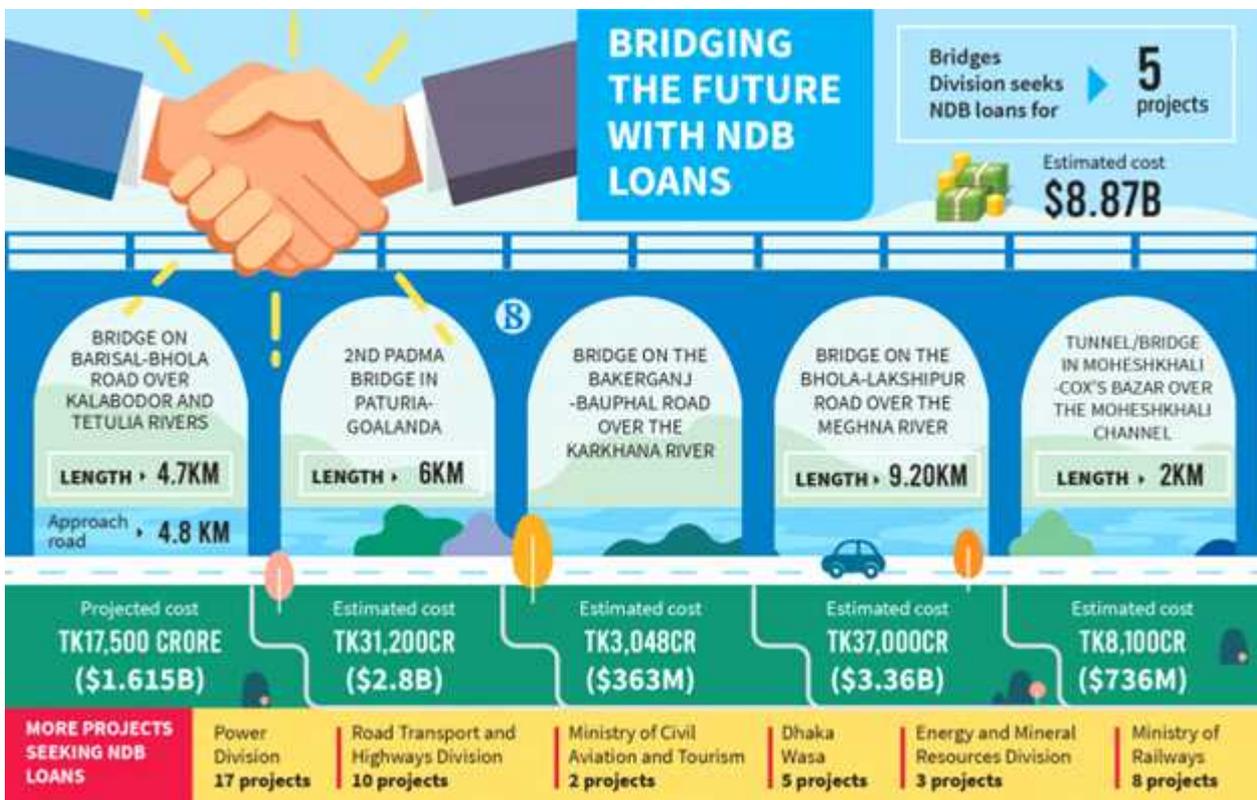
- SREDA는 2012년에 이 분야의 단일 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10MW 이상의 용량을 가진 재생 에너지 발전소 실행에 대해서는 관할권 없음.
- 파워 셀 사무총장 모하마드 호세인(Mohammad Hossain)은 SREDA가 실제로 단일 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정부는 조직을 강화하고 적절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

□ 터널 개발의 통합적인 계획 부족

- 카르나폴리 강 아래 3.315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가반두 셰이크 무집 라흐만 터널은 차토그램 시의 경제적 생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 차토그램 항구, 안와라 공업지대, 마타바리 심해 항구, 콕스 바자르, 다카, 그리고 차토그램 공항과 같은 중요한 중심지를 연결하는 이 터널은 지난 10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 중 하나임.
- 터널 개통 이후 낙관론이 대두되었지만, 현실은 어려움을 드러냄.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터널 용량은 연간 630만 대이며, 2030년까지 1,390만 대가 예상, 이 중 절반은 화물 차량으로 예상.
- 터널은 매년 0.17%씩 향후 50년간 국내총생산(GDP)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추정. 터널은 매일 27,000대의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첫 1개월 반 동안 하루 5,829대의 차량만 운행.
- 그 배경으로 터널의 통합 계획 및 설계에서 중요한 누락된 부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터널 양끝의 잠재적인 교통 병목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유로 지적.

□ 방글라데시 정부, 5대 핵심 연결 프로젝트에 89억 달러 NDB 대출 요청

- Bridge Division에 따르면 정부는 약 88억7천만 달러의 추정 비용으로 5개의 다리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개발은행(NDB)에 대출을 요청.
- 경제 관계 부서 (ERD)에 의해 보고 된 바와 같이, 다양한 부처와 정부 부처들은 NDB로부터 수많은 프로젝트들에 대한 용자를 받기 위한 제안서들을 제출. 이 프로젝트들의 잠재적인 비용은 2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음.



[주요교량 5개 추가]

1. 바리샬-블라 교량

- 바리샬-블라 도로 사업의 교량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완료.
- 인도의 컨설팅 회사인 STUOP Consultants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 현재 BBA에서 보고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비 개발 사업 제안서 작성도 진행 중.
- 본 교량을 통해 블라에서 생산된 가스를 본토로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건설할 수 있을 것. 볼라의 샤바즈푸르 가스전은 7,210억 입방 피트의 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

2. 베이커간지-바우팔 교량

- 카르카나 강 위의 베이커간지-바우팔 도로에 다리를 건설하는 데 Tk3,048 크로어 (3억 6,300만 달러)가 들 것. 이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완료.
- 제안된 다리는 베이커간지와 바우팔 우파질라스를 통해 바리샬과 파투아 칼리 사이의 교통을 연결할 것.

3. 볼라-락슈미푸르 노선, 메그나 강 9.20km 교량

- 볼라-락슈미푸르 노선의 메그나 강 위에 9.20km의 다리 건설을 위한 NDB 차관도 요청. 이 다리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 교량 사업부의 예비 추정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약 Tk37,000크로어 (33억 6천만 달러).

4. 파투리아-골란다 노선, 파드마강 6km 길이의 다리

- 파투리아-골란다 도로의 파드마 위에 6킬로미터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 예비 추산에 따르면, 다리 건설에는 약 3만 1,200크로어 (28억 달러)가 소요될 것.

5. 모하쉬칼리에서 콕스바자

- 정부는 Maheshkhali에서 Cox's Bazar에 이르는 터널 또는 다리 건설을 위한 NDB 자금을 찾고 있음. 교량 공사는 2km 터널 또는 다리 건설에 8,100크로어 (7억 3,6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추정.

[NDB에 대한 더 많은 대출 제안]

- 경제관계부(ERD) 관계자들은 교량부와 별도로 NDB 대표단이 민간항공 관광부, 철도부,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 및 고속도로부, 지방자치단체, 농촌개발 및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등과 별도의 회의 개최.

- 이 회의 동안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목록을 NDB에 제출. 관계자들의 예비 추정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230억 달러. 그러나 NDB의 최종 승인은 프로젝트의 PDPP를 보낸 후에 얻어질 것.
- 이에 앞서 정부는 어떤 사업에 NDB 대출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PDPP는 ERD를 통해 NDB로 보내지게 됨.
- 한편 ERD 소식통들은 전력부의 17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NDB에 제안서 발송.
- 이 중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은 5개, 배전 및 송전 분야는 5개 사업.
- 이들 사업의 총 이행 비용은 Tk41,373크로어(37억 2,700만 달러)로 추산. 이 중 Tk32,315크로어(29억 1,100만 달러)는 해외 차관에서 조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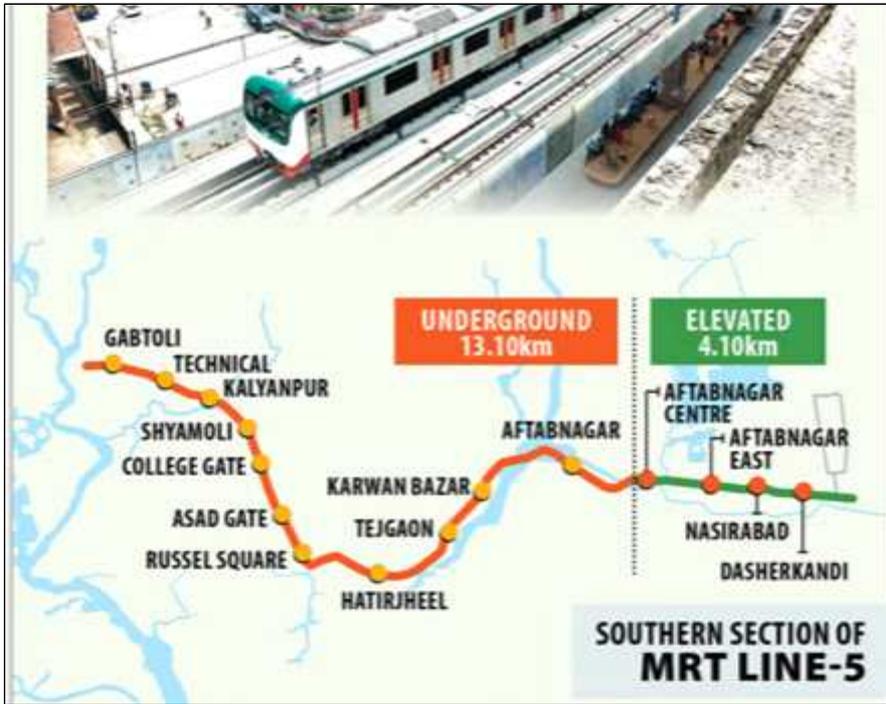
[방글라데시와 NDB의 관계]

- 방글라데시는 2021년 9월 NDB 가입을 획득했지만, 대출 제안서 제출 과정이 길어 아직 이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현재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담보 자금 조달 금리(SOFR)가 상승함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시장 기반 대출을 적게 받고 있음.
- ERD에 따르면, NDB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방글라데시를 위해 45억 달러를 축진하고자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준비 상태에 따라 대출 금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있음.
- ERD 관계자들은 올해 NDB와 2개 프로젝트에 대한 7억 63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 여기에는 Daka Wasa의 상수도 프로젝트가 포함, 이 프로젝트에 대해 NDB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3억 2000만 달러를 대출해줄 예정. 이 프로젝트는 이미 국가경제 위원회(Ecnec)의 승인을 받았으며, 대출 합의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NDB는 수십 년간 지속된 누출 가스 파이프라인을 대체하기 위해 4억 4,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 ERD 관계자들은 티타스 가스 송배전 유한회사가 NDB와 올해 안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
- NDB는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교통, 인프라, 물·위생, 환경보호, 사회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등 6개 부문에서 회원국에 대출을 확대하고 있음.

□ MRT 5호선, 자금 지원 확정

- 대중교통 5호선 남부 노선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 확정되면서 다카에 또 다른 주요 지하철 노선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밝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 일을 위해 30억 달러, 한국은 15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 방글라데시 정부는 총 51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제공할 것.
- 이 프로젝트는 다카 서부 갑톨리와 다카 동부 다세르칸디 간 17.20km 거리의 지하철 운행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 마감일은 2030년.
- 이 중 13km 이상은 지하로, 4.10km는 고가로 건설될 예정, 자금 지원이 확정되면서 도로교통과는 지난달 세부 사업제안서를 기획부에 제출.
- 재정부의 사업평가위원회가 먼저 이 제안을 검토한 뒤 국가경제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승인을 받을 것.
- ADB 펀드는 양허형과 비양허형 대출이 혼합되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를 포함해 30년.
- 한편, 한국은 2023-2027년 기간 동안 30억 달러의 소프트 론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5월 "프레임워크 어레인지먼트"를 체결. 그 자금 중, 15억 달러는 Mass Rapid Transit Line-5의 남부 노선을 위한 것. 그 금리는 40년 상환 기간과 15년 거치로 0.01%에서 0.05%가 될 것.



[프로젝트 세부 정보]

- MRT 5호선의 남쪽 노선은 갑톨리에서 출발하여 칼리얀푸르, 샤몰리, 아사드 게이트, 러셀 스퀘어, 카르완 바자르, 하티르HEEL, 테즈가온, 아프타브나가르를 거쳐 다셰르칸디에서 끝남. 프로젝트 문서에 따르면, 터널 구간은 갑톨리와 아프타브나가르 사이가 될 것이고, 고가 구간은 아프타브나가르에서 다셰르칸디 사이가 될 것.
- 6대의 에어컨이 장착된 19대의 열차가 초기에 운행될 예정. 문서에 따르면 각 지하철은 최대 1,908명의 승객을 수용.
- 다카의 인구는 현재 2천만 명이 넘고 2035년에는 3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이 프로젝트는 다카시와 인접 지역의 교통 체증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
- 정부는 2030년까지 다카와 인근 지역에 6개 노선으로 구성된 140km의 지하철 노선망을 구축할 예정. 6개 노선으로 구성된 계획된 노선망이 현실화되면 50명의 라크족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지하철 다음으로 다카의 버스는 메가 프로젝트가 될 것.

- 지하철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카 시 당국은 공공 버스 부문을 개선하고 규율할 수 있음. 다카 지하철은 여전히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첫 번째 노선인 MRT-6이 거의 완공, 다른 여러 노선이 건설 중.
- 당국이 2030년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말하는 지하철 철도망은 다카 시 전체를 가로지르게 될 것. 103개의 역이 있는 완전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메트로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갖춘 도시가 되려면, 정부와 시 당국은 전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지하철은 퍼즐의 한 부분일 뿐. 버스 노선을 합리화하고 버스 서비스를 승객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
- 대중 교통 시스템 내에서 버스는 지하철 노선과 병렬로 존재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류장으로 더 저렴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음. 이는 두 목적지 간의 대체 교통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객을 위한 라스트 마일 배송의 매개체가 되어 집과 상업 목적지 근처에서 통근자를 모아 지하철 철도에 태우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
- 이러한 계획은 새로운 발견은 아니며 과거, 다카에서 버스 서비스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음. 고(故) 다카 북부 시장인 아니술 후크 (Annisul Huq)은 수백 개의 활성 노선을 단 42개로 합리화하고 소수의 클러스터로 조직하여 단일 회사가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 생태계를 구상. 이 계획은 그의 죽음으로 좌절되었지만, 현 다카 남부 시장인 셰이크 파즐 누르 타포쉬(Sheikh Fazle Nur Taposh)에 의해 다시 부활.

□ 어디에나 만연한 부패

- 기획부 장관 마 만난(MA Mannan)은 최근 의회에서 전국적으로 부패 수준이 높아졌다고 발언. 정부가 부패에 대해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기획부 장관의 이러한 인정은 모든 정부 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 장관은 또한 부패를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지난 30-40 년에 비해 공적 자금 지출이 두 배, 세 배 또는 경우에 따라 네 배로 증가했으며 이는 부패의 범위도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

- 거의 모든 공공 부문이 부패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으며,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는 정부 기관이나 프로젝트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넘쳐남. Prothom Alo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관실(OCAG)은 방글라데시 철도(BR)의 조달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정과 부패를 발견. 수산부의 한 프로젝트 책임자가 자신의 차를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한 임대 차량으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방법을 폭로. 이 두 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뇌물수수, 강탈, 횡령, 속임수, 직무태만, 족벌주의 등의 형태의 부패는 보건, 철도, 교육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모든 정부 부문에 만연.
-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22년 부패 인식지수(CPI)를 발표, 방글라데시는 180개국 중 147위를 차지. TIB는 또한 지난해 서비스 부문의 부패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15,454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중 약 71%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부패에 직면해야 했다는 것을 발견.
- 이런 상황에서 기획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정부는 모든 부패 경로를 파악하고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Ijtema 첫 모임 종료.

- 무슬림들의 가장 큰 공동체인 비즈와 이즈테마(Biswa Ijtema)의 첫 번째 단계는 아케리 무나자트(Akheri Munajat, 마치는 기도)로 종료. 통기(Tongi)의 투라그(Turag) 강둑에서 열린 종교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도 집회를 개최.
- 방글라데시 타블리 자마트(Tabligh Jamaat)의 지도자이자 다카의 카크레일 자메 마스지드(Kakrail Jame Masjid)의 수석 이맘인 마울라나 하페즈 조바이르 아흐마드(Maulana Hafez Zobair Ahmad)는 오전 10시

42분에 시작된 24분간의 무나자트를 진행.



- Ijtema의 두 번째 행사는 2월 9일 같은 장소에서 시작하여 2월 11일 Akheri Munajat로 마무리.
- 행사장에 도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집이나 사무실 등 여러 장소에서 전화와 전자기기를 통해 기도에 동참. 많은 신자들이 행사장 근처까지 수 마일을 걸어야 했고, 다른 많은 신자들은 다카-미멘싱 고속도로에서 멈춰 섰음.

□ 톰브루 국경에 긴장 고조

- 군부군과 아라칸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최소 68명의 미얀마 국경 부대가 방글라데시로 피신.
- 미얀마 국경 수비대 최소 68명 중 15명은 어제 반다르반으로 피신, 이 지역 톰브루 지역의 국경 근처에서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짐.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GB)는 이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반다르반의 나이홍차리 우파질라에 구금.
- 미얀마군과 무장단체 아라칸군 간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경을 넘어 총알과 박격포탄이 날아와 방글라데시 국민 최소 3명이 부상.
- 아와미연맹 사무총장 오바이둘 퀘달(Obaidul Quader)는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요청. 또한, 야오웬(Yao Wen)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 대사가 퀘달을 예방. 아사두자만 칸 카말 내무장관은 외무부가 미얀마 국경수비대 대원들을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힘.